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손 동 수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1년 4월 21일까지 144일간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348만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고, 구제역 백신을 전국적으로 접종하게 되었다. 현재 구제역은 완전히 청정화된 것이 아니고 백신접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소독이 필수!

농장에 출입하는 농장주나 종사하는 사람이 외부에 나갔다가 농장으로 돌아오면 바로 축사 내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외부에서 돌아오면 신발과 손, 의복 등에 소독약을 분무한다. 그리고 몸 전체를 샤워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신발로 교체한 후 소독하고 축사에 들어간다. 외부인은 축사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출 후 축사 출입과 동일한 요령으로 소독을 하고 출입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구제역 발생 국가인지 확인하고, 구제역 발생 국가로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한다. 여행을 하게 되면 출국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는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필히 소독을 받는다. 입국 후에도 축사에는 5일간 출입을 삼가고, 여행 중 착용한 의복이나 신발은 바로 세탁하여 샤워 등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농장에는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 외부에 주차하고 방문자만 소독한 후 출입하게 한다. 차량 출입시에는 농장입구에서 운전자와 다른 탑승자도 모두 내려 신발과 신체에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차량의 바닥매트 등 내부에 소독액을 분무하여 소독한다. 차량의 외부를 소독액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하고 특히 차량의 아래와 흙받이 등에도 소독을 철저히 한다. 많은 농가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소독장치가 개방식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그리고 바퀴 소독조는 차량이 출입할 때 소독액을 채워 소독이 되도록 해야 소독효과가 높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축사는 자주 소독

축사의 출입구에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출입자는 축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도 항상

신발을 소독한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교체하여 소독약의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축사의 소독횟수는 주 2~3회 이상을 권장하나 소독은 자주해주는 것이 좋다. 축사 내 소독은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가축의 체표와 함께 소독을 하며, 소독약이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도록 한다. 최근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피부세포가 구제역을 잘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축의 체표소독도 구제역의 전파를 방지하는 하나의 요령이다. 그리고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나 도로도 소독한다.

정기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 등 가축의 위생적 관리가 중요

가축은 축사 내에 적정두수를 사육하여 밀집

사육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와 급수 등을衛生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게 사육한다. 구제역 백신을 정기적으로 적기에 접종하여(육성축 이상은 5~6개월 간격, 어린 가축은 생후 8주령과 12주령, 임신한 모돈은 분만 3~4주 전 접종) 면역력을 높인다. 백신 접종 시 환축과 분만 직전이나 직후의 가축은 회복 후에 접종하고, 접종 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제역이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 축산농가와 외부 인의 접촉차단, 축사 내에 흡뻑 젖을 정도의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사례가 있듯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1년 10월호>



▲ 축사 내부 소독액 분무



▲ 축사 바깥과 진입도로 소독